

사회

# 교육 기자재 납품 비리 유제원 도교육위원 구속

## 학교에 압력 대가 75차례 4억 받아... 조카 H사 대표도

### 현직 교육위원 증 처음

검찰이 교육위원의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교육계 납품 비리를 주도해온 전남도교육위원을 전격 구속했다. 현직 교육위원이 비리에 연루돼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교육계 전반에 파문이 일고 있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재구)는 18일 일선 학교의 기자재 납품을 대가로 교구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유제원(65) 전남도교육위원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교구 납품을 대가로 유 위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유 위원 조카이자 교구 납품업체인 H사 대표 유모(48) 씨를 함께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위원은 2005년부터 최근까지 광주시 동구 H사에서 교구 납품을 주선해준 대가로 75차례에 걸쳐 4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행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유 위원은 도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면서 H사가 일선 학교에 교구를 납품할 수 있도록 압력을 넣는 대가로 현금은 물론, 7천300만원 상당의 외제승용차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 위원은 H사와 교구 납품 계약을 맺지 않을 경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해당 학교 관계자를 상대로 공공연히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 위원은 지난 2003년 순천지역 모 초등학교장이 자신의 교구 납품 제의를 거절하자 다음해 열린 교육위원회 회의를 통해 해당 교장의 교구 납품 불리 의혹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위원은 지난 1969년 H사를 설립·운영해오다 1998년 도교육위원에 선출된 이후 회사 대표직을 조카에게 물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위원 전 전남도교육위원회 의장·부의장으로 활동하던 2005~2008년 사이

부적절한 금품 거래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도 유 위원은 2005년 1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Y환경 관련 업체의 회사 돈 2억7700여만원을 횡령하고, 부동산신탁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카 유씨는 H사의 교구 납품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해준 대가로 유 위원에게 4억원대의 '뒷돈'을 건넨 혐의로 구속됐다. 또 H사의 업종이 아닌, 학교 인테리어 공사 등을 주선한 뒤 이를 제3자에게 넘기고 사업비의 20%에 해당하는 '리베이트'를 받아 행간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유 위원은 검찰에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아내가 갖고 있던 H사의 자본 40%에 대한 배당금으로 받은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유 위원은 6·2 지방선거에 교육위원으로 출마한 상황이다.

/최경희기자 choice@kwangju.co.kr



**오월 영령 위한 천도재** 18일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중항쟁 30주년 기념행사에서 원불교 광주·전남교구 이정택 교구장을 비롯한 교무와 신도 등이 '5월 희생자 영령을 위한 천도재'를 지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윤상원·최미애 시신 너무 참혹했다”

### 5·18 때 검안의 참가 전호중 조선대 총장

윤상원 들불 열사와 총격으로 숨진 임신부 최미애씨를 검안했던 전호중 조선대총장이 30년만에 입을 열었다.

1980년 5월 당시 검안의사였던 전호중 총장은 5월 27일 옛 전남도청에서 북부 자살과 함께 온 몸이 불에 그을린 윤상원 열사를 검안하면서 그 참혹함에 치를 떨었다. 또 새로운 생명을 잉태한 상태에서 머리엔 총을 맞아 숨진 최미애씨를 검안할 때는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

80년대 시대 상황이 험악했다고는 하지만 검안 사실과 5·18의 참혹함을 적극 알리지 못했다는 부끄러움과 자괴감이 지금까지 검안 의의라는 사실을 한마디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

전 총장은 “항쟁 30년이 지난 지금 5·18의 진실이 한층 빛을 발하고, 후대가 5월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교육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입을 열었다”고 말했다.

그가 30년 동안 잊지 못하는 당시의 사망자는 3명이다. 등에 맞은 총탄으로 가슴이 크게 훼손된 사람, 머리에 총을 맞아 숨진 임신부, 복부에 입은 자살로 내장이 흘러 내린 데다 몸이 그을린 젊은이이다.

전 총장은 1980년 5월 옛 전남도청에서 사망한 시민들을 검안한 의사였다. 당시 검안의는 조선대와 전남대 의사 등 총 10명이었다.

당시는 정신이 거의 없는 상황 이어서 몇 명을 검안했는지 지금도 기억하지 못했다. 다만 수많은 사체 중 끔찍하게 숨진 이들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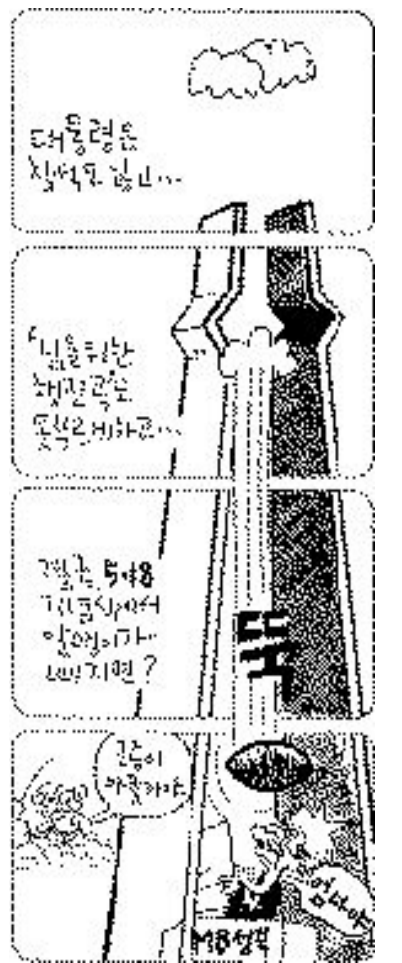
한 기억은 30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다고 한다.

조선대병원 레지던트 2년 차였던 전 총장은 계엄군 진압이 완료된 5월 27일 오전 검안을 위해 도청으로 향했다. 도청 민원실 쪽의 사체부터 검안에 들어갔다. 총을 맞은 곳은 등이었는데 총탄이 관통하고 나온 가슴이 거의 떨어져 나간 상태였다. 나중에서야 그가 신학대생인 것을 알았다.

또 그 옆에는 들불야학에서 봉사활동을 했던 윤상원씨도 보였다. 당시의 사망자가 윤씨인 줄 몰랐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 나원침 (8024) 김중두



### 쌍꺼풀 수술 40대女 자살

지난 17일 오후 4시20분께 이모(여·41·백화점 계산원)씨가 자신의 집 안방에서 목을 매 숨져있는 것을 아들(14)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의 옆에서는 “이 눈으로 살 자신이 없다. 너무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달 26일 광주 시내 한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수술을 받은 뒤 가족들에게 괴로운 심정을 호소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 성폭행 하려다 성기 물어뜯긴 남자

○성폭행미수범이 성기를 물어뜯긴 채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

○전주 완산경찰에 따르면 18일 오후 1시20분께 전주시 삼천동의 한 다세대주택에 30대 과환이 침입해 A(여·55) 씨를 성폭행하려 했으나 A씨는 “자궁암 말기라 성관계를 못한다”라며 상황을 모면하려 했지만 과환은 유사성행위를 요구.

○이에 A씨가 과환의 성기를 물어뜯자 당황한 과환은 A씨가 차고 있던 금목걸이(50만원 상당)를 빼앗아 그대로 달아났으며, 경찰은 과환이 피를 많이 흘려 멀리 달아나지 못했을 것으로 보고 인근 병원 등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진행.

/연합뉴스

## 예산 심의·의결 교육위원 ‘힘’ 막강

### 교육계 교구 납품비리 실태

그동안 말로만 떠돌았던 교육위원이 개입한 교육비리는 ‘신설학교 교재·교구 납품’·‘과학실험실 현대화 사업’·‘영어전용교실 구축’ 등 교육사업 전반에 걸쳐 있다.

◇ ‘먹을 것’ 많은 학교 사업=24학급 규모를 기준으로 신설 학교에 들어가는 교재·교구는 3억원 안팎이다. 책·결장을 비롯한 칠판·사물함·과학실 등 특별실 교육자재 등 필수구입 품목만 100개가 넘는다. 전남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모두 17개의 신설학교가 설립돼 50여억원의 교재·교구 예산이 투입됐다.

또 전남지역 403개교는 지난해 영어전용교실 구축에 학교당 3000만~5000만원씩 73억원을 지원받는 등 매

년 각종 학교 사업에 수백억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H사는 지난 2003년부터 추진된 전남지역 초·중·고교 441곳의 과학실 현대화 사업에 참여해 41%에 이르는 183개교(학교당 사업비 2000만원)의 사업을 수주, 납품하기도 했다.

◇ 허술한 제도가 비리 온산=일부 교육위원은 이러한 학교사업에 크게 2가지 유형으로 개입한다는 게 교육계 관계자의 주장이다.

먼저 교육위원이 특정물품에 대한 수요 조사 후 예산을 확보하고, 특정 업체를 선정토록 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예산이 지급될 학교를 사전에 알 수 있고, 지원 대상 학교의 선정에

도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청탁’이 쉽게 이뤄진다.

또 다른 비리유형은 조달청의 3자 단가 구매 방식을 이용한 특정업체 선정 방식이다.

전남도교육청에서는 통상 2000만 원 이상의 재원이 투입되는 교재·교구 구입에 대해서는 조달청의 ‘3자 단가 구매 방식’을 활용토록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교육위원의 개입이 충분하다.

◇ 교육위원이 뒤줄래=교육위원은 임기 4년동안 1억2000여만원의 의정활동비를 받고, 교육 관련 조례안은 물론 예산을 심의·의결한다. 교육위원에게 ‘찍힌’ 실·과의 경우 예산 삭감은 물론 인사회나 사무감사·조사권 등을 통해 추가 압박을 받는 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김충식 前 해남군수 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부남)는 18일 관급공사 수주 대가로 업체에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김충식(60) 전 해남군수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군수는 지난 3월 서울의 경관조명업체 (주)나이프피아가 해남군에서 발주한 26억원 규모의 ‘광활마을 경관조명공사’를 수주하도록 돕고 1억5000여만원을 받는 등 각종 공사 수주와 관련해 3개 업체에서 모두 1억9000여만원을 행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나이프피아에서 700만원을 받은 해남군청 공무원 서

모(54)씨와 나이프피아 대표이사 남모(51)씨 등 3명을 각각 뇌물수수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 양부남 검사·해남군수를 ‘악연’

김충식 전 해남군수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한 양부남 부장검사와 해남군과의 ‘악연’(惡緣)이 회자되고 있다.

양 부장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재직 시절인 지난 2007년 6월 당시 박희현(65) 해남군수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박 전 군수는 군청 공무원 등으로부터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군수직에서 물러났으며 군민 수십여명이 과태료 폭탄을 맞기도 했다. 답양출신 특수수사팀인 양 부장은 광주지검 등을 거쳤다. /최경희기자 choice@

# 왜! 편입하면 김영인가?

## 상위권대학 거침없이 합격시킨다

<b>개강 ▶ 6월 1일 대학편입 강좌안내</b>		<b>편입학원 책임교수진</b>	<b>편입학원 전문 강사진</b>	<b>편입학원 시스템</b>
<b>편입영어</b>	기초이론반	대학편입 전문 책임교수진 - 100% 합격률 보장	대학편입 전문 강사진 - 100% 합격률 보장	편입학원 시스템 - 100% 합격률 보장
<b>편입수학</b>	미적분학	대학편입 전문 책임교수진 - 100% 합격률 보장	대학편입 전문 강사진 - 100% 합격률 보장	편입학원 시스템 - 100% 합격률 보장

13만여명의 합격자를 배출! — [www.kimyoung.co.kr](http://www.kimyoung.co.kr)

# 김영편입학원

광주동부경찰서 뒤 ☎02-222-8088, 227-8088